

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첫 가입자에 축하

기사입력 : 2024-05-26 12:44:03

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주현)는 올해 신규로 도입된 ‘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’ 첫 가입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가입을 축하했다.

‘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’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.

이 사업을 통해 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노모씨(60대, 의령군 거주)는 “올해 설 명절 때 현수막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,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.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”며 “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조윤제 기자 cho@knnews.co.kr

<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전재·크롤링·복사·재배포를 금합니다. >

